

광주에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만든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 예술공간 조성

광주문화재단이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광주시 남구 구동 일대를 예술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개인 후원을 받는 '광주문화예술사랑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반면,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마련과 명예의 전당에 올릴 예술인을 선정하는 과정의 논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광주문화재단은 31일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조성' '문화보듬 10000운동' 등이 포함된 '광주문화예술사랑운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대표이사과 사무처장을 새로 뽑은 뒤 내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문화재단 운영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문화예술사랑운동'은 시민·기업의 기부를 통해 부족한 기금을 늘리고, 예술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은 시민 한 명이 매달 1만원을 기부하는 '문화보듬 10000운동'을 펼치게 된다.

또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공간에 광주의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기부자를 현창하는 '명예의 전당'을 조성한다. 문화재단은 현재 시민을 대상으로 명예의 전당 조성에 따른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4월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문화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명예의 전당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명예의 전당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일부를 개조, 기부관과 문화예술인관, 체험관을 첨단 IT기술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조성하게 된다. 체험관은 광주문화예술의 계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 및 교육의 장으로 어린이, 직장 동아리 등

시민 1만명 월 1만 원 후원
'문화보듬 10000 운동' 등
광주문화예술사랑운동 펼쳐
예술+기업 '아비스프로젝트'도
총 30억 소요...예산 확보 숙제
전당 인물 선정 공정성 문제도

희망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화재단은 또 빛고을시민문화관 일원에 12개 공간별 테마가 담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아비스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비스프로젝트'는 예술(ART)과 기업(BUSINESS)을 합성한 단어다.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아트스페이스를 대대적으로 개조, 아시아문화전당-광주 문화재단-시민과의 네트워크 통로역할을 할 수 있는 12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이 계획의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미디어아트시티 광주의 특성을 살린 미디어아트창의도시홍보관, 예술의 정원, 디지털문화정글, 미디어캔버스를 활용한 커뮤니티아트 공간, 미디어아트창작공간 등이 조성된다.

또 지역 기업의 후원협력을 유치, 해당 기업을 소개하는 기업관, 무등산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을 소개하는 책의 정원 등 코스를 개발해 광주문화예술관광의 랜드마크



광주문화재단이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문화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문화재단은 광주시의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과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4가지 프로젝트를 구성했다.

문화재단이 12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돈만 30억원이지만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문화재단은 현재 아비스프로젝트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후 조성 예산은 단 한 푼도 마련하지 못했다.

아비스프로젝트는 오는 2023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당장 30억원이 모두 필요하지는 않지만 제때 돈을 구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허구호에 그칠 수 있다. 문화재단은 기업과 시민들의

기금 후원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한 해 후원금 1억원을 모으기도 힘들 실정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또 명예의 전당에 올릴 예술인을 뽑는 과정의 형평성 논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술적 가치를 객관화할 방법을 찾기 힘들고, 명예의 전당에서 소외되는 일부 문화·예술단체의 반발 등도 우려되고 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예산을 모을 것이며,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 등을 꾸려 조만간 세부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진희의 문화카데

서양화가 한희원씨는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짙어 나가는 대로 광주 금남로의 작업실과 양림동(楊林洞)을 오가느라 바쁘다. 그가 부쩍 양림동을 자주 찾는 이유는 지난달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마련한 한옥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기와지붕만 살리고 나머지 공간은 완전히 뜯어 고치다 보니 직접 챙겨야 할 게 많기 때문이다.

한 작가가 양림동에 특별한 애정을 쏟는 건 유년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고향'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난, 어린 시절 친구인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의 조소해 작가가 그린 경유

두 개의 건물, '호랑가시나무 게스트 하우스'와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창작소)였다. 원래 원효산의 사택이었던 이곳을 문화기획자 정현기(아트 주 대표)씨가 방문객들과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 각각 리모델링했다. 건물 주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호랑가시나무에서 이름을 따온 건물들은 양림동의 풍광과 어울려 색다른 감성을 불러 일으켰다. 행정의 지원 없이 양림동의 가치를 알리고 싶은 젊은 기획자의 맘으로 거둔 결실이어서인지 각별하게 느껴졌다. 올 안에 창작소 옆에 레지던시 작가들의 결과물을 선보일 '호랑가시나무 미술

양림동의 봄

다. 드라마는 '똥지만' 예술적 자양분이었던 작가의 고향은 알려지지 않은 게 안타까워 '양림동 알리미'로 나서게 됐다. 손이 많이 가는 한옥 미술관을 추켜 든 것도 작고 작가 배동신, 이강하, 시인 김현승 등 양림동 출신 예술인들을 기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서다. 이제 막 공사에 들어간 한옥은 올 가을이면 양림동의 명소가 될 것 같다.

마침 한 작가의 한옥을 찾은 날은 '햇볕이 드는 동네'라는 이름처럼 봄볕이 따뜻했다. 양림동의 '구내식당'적인 한옥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이장우 가족, 최승호 고백, 우일순 선교사 사택, 오웬 기념각, 어비스 기념관 등 근대 유적들이 하나 둘씩 얼굴을 내밀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의 양림동으로 거슬러

올날 특히 기자의 시선을 끈 건 우일순 선교사 사택 아래에 자리한

관'이 문을 열면 아담한 '아트 파크'(art park)가 탄생할 듯하다.

이처럼 양림동에 가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보물창고'들을 찾을 수 있다. 쓰레기장이었던 작은 골목을 하나하나 치우려 작은 텃밭을 일군 김동균 씨의 '뽕나무 텃밭'을 들러다 볼 수 있고 미디어 아티스트 정은희씨 부부의 예술카페 '파우제', 시인 김현승을 모티브로 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찻집 '다들다방'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수년 전부터 광주시와 남구청은 근대문화역사마을을 만들기사업이란 명목으로 양림동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양림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건 한희원, 정현기, 정은희 같은 양림동 사람들의 열정이다. 비록 작고 더디지만 양림동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햇볕 좋은 날, 양림동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건 어떨까.

<편집부특강·문화선원기자>

두 대의 비올라와 피아노 선율을 만나세요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2·7일

'비올라의 계보' '허원숙 콘서트'

로 활동중이다. 두 사람은 이모와 조카 사이로 이씨는 이모에게서 비올라를 배웠다.

레퍼토리는 브릿지의 '두 대의 비올라를 위한 에가', '헨델의 '두 대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8번 사단조 작품 2',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 등이다. 특히 브람스의 '콜 니드라이'와 첼로,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 가단조'는 두 대의 비올라와 피아노로 편곡해 들려준다. 피아노 반주는 김재원씨다. 티켓 가격 일반 3만원, 학생 1만원.

7일(오후7시30분)에는 피아니스트 허원숙 콘서트가 열린다.

'베토벤의 초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변주곡 두 작품을 들려준다. 첫 곡은 '자작 테마에 의한 32개



'비올라의 계보' 이승원 ◀▶ 조명희

의 변주곡'이다. 두번째 곡은 70분에 이르는 대곡인 '안톤 디아벨리 왈츠에 의한 33개의 변주'이다. 베토벤은 디아벨리의 간단한 주에서 33개의 변주를 만들어냈다.

서울대 빈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허씨는 발세시아 국제콩쿠르 1위를 비롯하여 비오티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허원숙

광주 광산구, '오월의 노래' 참여 시민배우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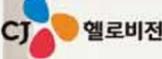
광주 광산구가 오는 10일까지 운상원 열사 기념극 '오월의 노래'에 참여할 시민배우를 모집한다.

'오월의 노래'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산출인 윤상원 열사를 기념하는 창작극으로 2013년 초연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선발 인원은 모두 10명이며 성별·연령에 상관없이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주민등

록등본 1부를 이메일(homr2145@korea.kr) 또는 팩스(062-960-8259)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지원서는 광산구 홈페이지(gwangsan.go.kr) '광산뉴스'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오디션은 오는 15일 광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시민배우들은 오는 5월 22~23일 이틀 동안 광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에 '놀이패 신명'(대표 오숙현)과 함께 참여한다. 문의 062-960-82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였?"

www.cjhellovision.com